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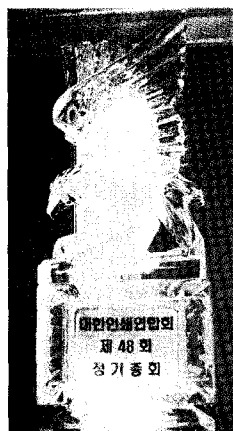
대한인쇄정보
 산업협동
 조합연합회

“인쇄업계 공동발전 위해 역량 집중”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충원)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엠배서더호텔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송재익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김직승·최창근 전인쇄연합회장 등 내빈과 조정석 서울조합이사장 등 대의원 1백 여명이 참석했다.

이충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다사다난 했던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인쇄업계는 생존하기 위해서 화합과 유대관계를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든든한 화합과 유대화를 통해 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무한 경쟁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서비스 산업으로 면모를 갖춰 디자인은 물론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안, 2009년도 잉여금 처분 승인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안, 2010년도 사업자금 차입 한도액 경정 결의안, 총회의결 사항중 이사회 위임결의안, 정관 일부 개정 결의안, 협동조합 추천제도 추천한도 설정 결의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각 부분별 시상으로 우수조합 부문에는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상),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상)이, 협동조합육성 공로 부문에는 박창환 부산인쇄조합 상무이사(연합회장상), 관계기관 유공 부문에는 김창호 중기청 기업협력과 사무관(연합회장상, 감사장), 유경숙 조달청 자재구매과 주사(연합회장상, 감사장), 유진호 중앙회 공공구매팀 과장(연합회장상, 감사장)이 수상했다.

“쇼핑몰 사업 정착 · 인쇄마을 조성 최선”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 2010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백두옥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내빈과 9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합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해부터 조합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2B 쇼핑몰사업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홍보부족 그리고 상호 소통 부족으로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한해였지만, 1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투명한 공정거래정착과 현실적인 용지가격 형성 등 보이지 않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다”며 “조합은 올해를 쇼핑몰정착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입점업체의 0.4% 쇼핑몰 수수료를 전액 면제, 0.1%의 시스템 운영관리비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대폭 개선하여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폭 조정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또 “조합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는 무엇보다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제값받아야 말로 우리 생존권과도 결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왜곡된 인쇄 값을 바로잡기 위해 인쇄관련 단체장들은 ‘제값받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이사장은 “제값받기 만큼이나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인 중구지역 ‘인쇄마을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은 1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와 중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임직원은 물론 조합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인쇄마을 조성이라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인쇄인 모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자”고 역설했다.

수상자 명단

- ▲서울특별시장 : (주)서울특수인크 대표 고영, 시온정판인쇄사 대표 김익식, 삼성아이앤비(주) 대표 방윤덕, 성신문화사 대표 이재복, 하미종합기획 대표 하명식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 경일칼라콤(주) 대표 김경선, 경인정보문화사 대표 안경만, 신영문화사 대표 윤한식, 서진인쇄사 대표 이광재, 신한종합인쇄사 대표 전기복
- ▲중앙회장상 : 투에이디자인 대표 공명숙, 동서문화사 대표 김용철, 세광인쇄사 대표 석봉천, 계명정판사 대표 이계은, (주)미성아트 대표 이병형, 태영전산품(주) 대표 조만영
- ▲연합회장상 : 햇귀L&D 대표 송희중, 신영사 대표 유병남, 태신인쇄공사 대표 이기형, 펜타콤프로세스 대표 천용관
- ▲이사장상 : 명성금박인쇄 대표 강태원, 한기람커뮤니케이션 대표 김기호, 한국소문사 대표 박성규, 월드인쇄 대표 박현출, 대영코팅 대표 송낙구, 푸른아이피에스 대표 양경호, 승림문화사 대표 이수상,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남도희 과장, 국민은행 총무부 손형기 대리,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조방훈 행정주사,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조주희 과장, (사)농민신문사 간행사업부 함장훈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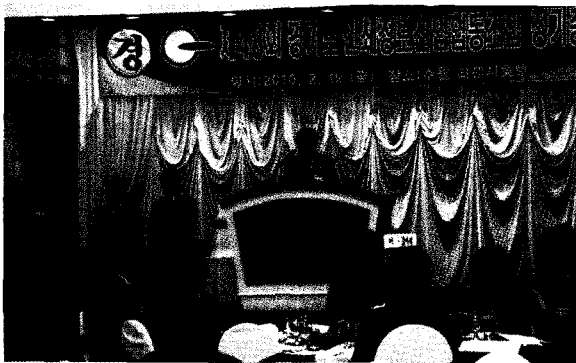


**경기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경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이완표) 제48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9일 리젠시호텔에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충원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김철기 경기지역본부장 등 내빈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등 부의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완표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에는 우리 인쇄인 모두가 화합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기회의 원년을 이루도록 새로운 마음이 필요할 때”라면서 “소액수의계약 추천구매제도와 공동입찰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합의 활성화와 조합원들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충복 우리사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상, 차병렬 대호디자인 대표가 연합회장 상, 하만교 한일스티커 대표가 인쇄문화협회장 상, 김태억 삼진애드 대표 등 8명이 이사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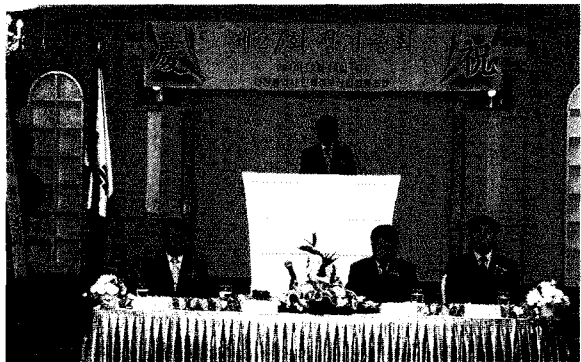
**인천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인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심응선) 제27회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 웨딩홀에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이충원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석봉 인천지역본부장 등 내빈과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등 부의안건들이 모

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심응선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조합의 추진사업인 계약업무대행과 업체추천에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엔 조합과 조합원이 합심하여 5천만원 이하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공구매정보망을 통한 소액추천수의계약제도를 더 한층 활성화 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영무 성광인쇄사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상, 박상문 명문미디어아트팩 대표가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 상, 박길산 시온인쇄사 대표가 연합회장 상, 서창옥 도서출판유림 대표가 인쇄문화협회장 상, 장계수 동양인쇄사 공장장과 김국화 조합 과장이 조합 이사장 상을 각각 수상했으며, 장민양 등 조합원사 자녀 3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대전충남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대전충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구자빈) 제48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3일 태화장 3층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등 부의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구자빈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년도에 우리 조합에서는 인쇄문화 축제와 산업단지 공청회, 조합소식지인 ‘사람과 인쇄’를 발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하나로 뭉쳐도 어려울 판국에 3개씩이나 조합이 혼재하다보니 우리의 주 고객인 일선 행정기관에서조차 버거워하는 만큼 단

합된 모습을 보이자”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방이걸 명화출판사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상, 채동환 동명인쇄사 대표가 연합회장 상, 정귀영 대전문화사 대표 등 9명이 이사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구경북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희준) 제48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3일 프린스호텔 별관 2층 리젠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등 부의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박희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월 11일 우리 인쇄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구출판산업단지가 드디어 대구광역시로부터 확정고시가 되었다”면서 “금년 4월 말까지 지정된 단지 내의 지장물 철거를 끝내고 5월부터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6월부터 분양과 동시에 토지기반공사를 실시하여 빠르면 내년 1월 정도에는 분양된 토지에 입주 신청한 업체들이 입주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또 “앞으로 회원확충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회원사간의 협조체계도 구축하는 등 조합이 해야 할 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리조합이 나아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현우 세종문화사 대표와 조진민 영문사 부사장이 대구지방조달청장 상, 김세현 교육사 대표와 변경도 태백종합인쇄공사 대표가 대구경북중기청장 상, 박태희 칼라윈 전무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상, 김대연 동양엘앤피 과장이 연합회장 상, 박준홍 경북봉투사 팀장이 문화협회장 상, 변남희 일일디지털인쇄 편집실장이 대

구상공회의소장 상, 박성철 한진종합인쇄사 주임이 대구경영자총협회장 상, 장효주 지엠프린텍 과장과 해주영 한빛인쇄기획 과장이 이사장 상을 각각 수상했다.



**부산
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노길용) 제48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7일 하모니웨딩홀 3층 소나타홀에서 이충원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유옥현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 본부장, 민영기 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등 내빈과 많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안) 등 부의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노길용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업계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고 우리 조합과 인쇄업계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인쇄물 제 값 받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둘째, 우리 스스로 인쇄문화인으로써 긍지를 가져야 하며, 셋째, 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넷째, 조합원의 화합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흥기 청림문화사 대표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상, 심상보 보림인쇄사 대표가 연합회장 상, 김충원 신안정판사 대표가 문화협회장 상, 권봉재 신일디앤피 대표가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상, 김봉현 성진사 대표·백낙열 시선디자인 대표·김동원 금령애드 대표가 조합이사장 상, 고종현 일광인쇄사 부장 등 5명이 모범사원 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는 지난 2월 23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6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백석기 회장은 개회사에서 "출판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밑바탕이며 인간의 역량을 발휘하게 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지난해 미증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한 만큼 올해도 지혜를 모아 산적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회의사록 낭독, 2009년도 사업보고, 감사보고,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지결산보고 등을 안전대로 승인했으며, 2010년도 사업계획(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국포장협회

한국포장협회(회장 윤영욱)는 지난 2월 25일 '포장인의 날'을 맞아 서울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윤영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수경기의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포장산업 발전을 위해 애쓴 전 회원사의 노고에 아낌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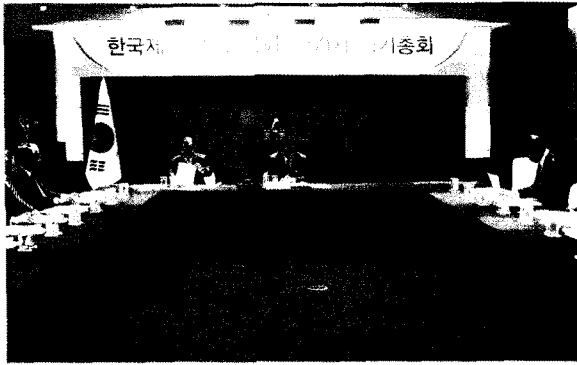
는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면서 "지난 해 '그린마켓 경영'이 전 산업계 키워드로 부각된 만큼 올해는 포장업계 역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면서 CO₂ 절감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포장재 및 부자재 역시 친환경소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장협회는 올해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정부 및 유관단체 포장관련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조사 및 전시사업, 출판사업 등에 주력하면서 협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제13회 한용교포장인상 시상식이 개최, 연구개발부문에서 한권형(SKCO(주) 필름개발실 선임연구원), 장학생부문에서 안병준(연세대학교 패키징학 3년), 정미화(용인송담대학 유통학부 1년) 학생에게 상금과 상장 및 부상을 전달됐다. 국내최초로 CPP·BOPP필름을 생산한 바 있는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회장은 공로패를 수상했다.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회장 이상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신라호텔 2층 회의장에서 제5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 비상근제인 회장직을 상근제로 바꾸고 이상문 연합회 이사를 30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제지연합회는 1983년 이후 27년 만에 비오너 회장체제가 됐으며 협회 상근 이사장직은 폐지됐다. 신임 이상문 회장은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요구조 개편으로 생기는 제지업계의 문제점 해소를 통해 공동발전 방안과 원자재 수급 안정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책공업 협동조합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재복)은 지난 2월 23일 서울 서교호텔 하모니홀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재복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의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책업계를 지켜온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어떠한 변화에도 두려워 않고 발전해 나가는 제책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업계 유공회원에 대한 포상이 있었다.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는 지난 2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4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용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세계 최초 잡지만의 전시회인 ‘2009서울매거진페어’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번 전시로 자신감을 가지고 잡지계의 위상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협회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애정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는 감사보고를 시작으로 2009년 사업실적보고와 수지결산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승인안, 정관개정 건 등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한철희)는 지난 2월 23일 한국출판인회의 강당에서 제1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철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출판계는 전자출판에 대해 적대적, 경쟁적 인식이 팽배해 있다. 출판지식산업의 발전과 출판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건전한 단체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2009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보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정관 일부 개정안 등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한편 한국출판인회의는 올해 핵심사업 목표로 ‘2010 전자출판의 원년, 출판인의 손으로 기록하자!’ 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전자출판 법·제도 정비와 정책견인, 지적재산권 표준 정착,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국출판학회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정춘)는 지난 2월 2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정기학술대회,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 정기총회를 동시에 개최했다. 창립 41주년을 맞은 한국출판

학회는 정기총회에서 2009년 사업과 결산, 2010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보고와 승인이 있었으며 새 임원으로 연구이사에 윤세민 교수(경인여대)가, 총무이사에 이문학 교수(인천대학교)가 선출되었다. 정기총회에 앞서 '구텐베르크 이후 문자와 사진 읽기에 대한 성찰'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으며, 30회째를 맞는 '한국출판학회상' 시상식에서는 연구·저술 부문에 오영식 보성고 교사가, 편집·기획 부문에 박찬익 박이정 출판사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판문화 발전에 우리 모두 헌신하는 마음을 갖자"고 말했다. 이어 전영표 명예회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학회의 성과는 눈부시다면서 앞으로도 출판잡지 발전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자"고 역설했다.



출판문화학회

출판문화학회(회장 금창연)는 창립 20년을 맞아 제19회 학술포럼 및 정기총회를 지난 2월 25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쇄문화회관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는 "교과서 편집 디자인과 문화 콘텐츠 저작권"이라는 대주제로 '교과서 디자인 평가에 관한 연구', '교과서 편집 디자인이 학업 몰입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온라인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 연구'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2009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와 2010년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금창연(동원대 광고편집과 교수) 회장은 "출판문화학회의 발전과 '출판잡지연구' 발간에 협조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출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 김중영)은 지난 2월 18일 M펠리스에서 2010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중영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조합원의 공익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상호 공유·실

천하여 단합된 힘으로 관리인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조합 소유 부동산인 서울 신수동과 현석동 부지 처분 건에 대해서는 의결없이 안전만 처리했다. 이 안전은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의결 수렴을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단순히 부지 매각과 건물을 지어서 분양, 임대하는는 2가지 방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스크린인쇄
공업협회**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회장 이기훈)는 지난 2월 19일 서울 호텔PJ 카라디움홀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감사 보고에 이어 '2009년도 사업 및 결산 보고' 및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2010년도 주요 사업으로 △FESPA 2010 참관단 파견 △KIPES 스크린특수인쇄관 운영 △스크린인쇄 관련 신기술 및 교육 세미나 △신규 회원 증원 △산학교류 협력 및 간담회 추진 △FESPA와 교류 강화 △SGIA 업무 협조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업계 및 협회에 공로가 있는 회원들을 포상했다.

한편, 20대 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신우철 예림종합기획 대표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잉여금 처분안 승인, 2010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 단체수의 계약 운영규정 개정 등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인쇄물수출진흥
협의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인쇄수출진흥협의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3월 3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제2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남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산업공동화와 달러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희망을 가지고 우리만의 강점을 키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내 인쇄업체는 서비스와 품질관리가 뛰어나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국내인쇄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내역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에 대한 건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



**한국페인트공업
협동조합**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안성철)은 지난 2월 25일 리즈칼튼호텔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안성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해는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불황과 내수경기의 극심한 부진으로 우리업계 역시 힘들고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합은 적극적인 원자재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협동화 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사의 이익증진은 물론 국내 페인트잉크산업의 발전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조합은 임직원들 모두가 일치단결해 페인트잉크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조합운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